

전시·공연·체험...성평등 세상 일상처럼 즐긴다

광주여성재단 '문화난장'
다음달 1일 문화전당서
젠더공감토크·포럼 등 다채
여성 삶·역사 조명 심포지엄도



다음 달 1일 여섯 번째 '광주여성문화난장'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곳곳에서 열린다. 2016년 진행된 행사 모습. <광주여성재단 제공>

전시·공연·포럼·체험 등 성평등 세상을 '일상처럼' 즐길 수 있는 여성문화난장이 열린다.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여섯 번째 '2018 광주여성문화난장'을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과 문화정보원에서 연다.

2년에 한 번씩 여는 여성문화난장은 광주여성재단이 주최하고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YWCA,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한국여성벤처협회 광주전남지회 등 5개 여성단체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축제 주제는 '성평등 문화, 일상으로'로 포럼과 워크숍, 전시, 체험행사 등을 열어 지역 성평등 역사를 다루고 여성공동체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장소는 두 곳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문화창조원 국제회의실에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음악·미술·문화·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젠더를 탐구하는 '젠더공감토크'를 연다.

이어 열리는 '호남권 성평등 문화 컨퍼런스'에서 성평등 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오후 2시30분 여성장애인들이 구성된 블랙라이트의 축하공연 뒤에는 올해 여성문화난장 기념식이 열린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광주젠더포럼'에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 사회를 위한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연다. 또 정기총회를 열고 참가자들끼리 친목을 다진다. 같은 날 문화정보원에서는 오전 11시 현

대여성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공동심포지엄이 열린다. 심포지엄을 통해 광주 여성의 삶과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같은 건물 강의실 1, 2에서는 ▲청년여성 이미지 메이킹 강연 ▲남성 육아 체험 ▲여성혐오 현안워크숍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여성인권포스터 전시·체험 ▲여성역사 전시 ▲전통 궁중한복·한지공예 전시·체험 ▲타로카드 등 소모임 체험 등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상시 진행된다. 라이브러리파크 로비에서는 성평등 세

상을 위한 정책을 참여 미술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양성평등문화콘텐츠 선정작이 같은 장소에서 상영되고 여성 수공예작가 공모에 선정된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축제 행사에 참여해 도장을 받아오는 참가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선물이 주어진다. 자세한 일정은 재단 홈페이지(gjwf.or.kr)나 전화(062-670-0530-2)로 알아볼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첼리스트 김규식이 12월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국투어 광주 공연을 연다. <지클레프 제공>

“한 곡만 들어도 히로애락 느끼게 클래식·탱고 등 다채롭게 연주”

전국 투어 첼리스트 김규식
다음달 1일 문화전당 공연

클래식, 재즈, 탱고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음악 지평을 확장해 온 첼리스트 김규식(47)이 광주 공연을 갖는다. 김규식은 전국투어 리사이틀 광주 공연이 12월1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지난달부터 전국 8개 도시를 돌며 9번의 공연을 마친 그는 이제 광주와 서울 공연만을 앞두고 있다. 공연 연수가 한창인 그와 27일 전화 인터뷰했다.

피아니스트인 부모의 영향으로 여덟살 때부터 첼로를 공부한 김규식은 빈국립 음대, 독일 에센 국립음대를 거쳐 영국 왕립 음악원을 졸업했다. 정통 클래식에 대한 애정이 깊은 그는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를 묻는 질문에 바흐와 베토벤을 꼽았다. 클래식과 탱고를 아울러 연주하는 이번 공연에 대해 그는 “관객이 한 곡만 들어도 히로애락을 느낄 수 있도록 레퍼토리를 다채롭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는 워낙 유명한 곡이라 무대 첫머리에 넣었어요. 세자르 프랑크의 음악은 어렸을 적부터 바이올리니스트인 친누나가 연주했던 모습을 보고 첼로곡으로 연주하려고 아껴뒀던 곡입니다. 작품을 완전히 익히려고 지난 여름부터 악보를 몇 군데 고치기도 하며 연습을 거듭했어요.”

광주 공연에 대한 김규식의 기대감을

상당하다. “이번 공연 장소인 문화전당 극장2는 저와 ‘구면’이예요. 2년 전 제가 이끄는 무누스앙상블과 이곳에서 연 공연이 매진됐어요. 극장2의 구조상 관객과 호흡할 수 있어서 당시 즐겁게 연주했던 기억이 나네요.”

2년 전과 같이 그는 이번에도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음악으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피아졸라를 장식하는 ‘탱고의 역사’ 중 ‘나이트클럽’은 5분여 밖에 되지 않지만 인생이 이 한 곡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탱고 음악의 거장인 피아졸라의 음악을 수없이 연주했지만 이 곡이라면 40년 가까이 음악과 함께 한 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했습니다.”

김규식은 현재 프랑스 몽펠리에 국제 아카데미 초청교수를 맡고 있으며 총무아트홀 ‘크로스오버 페스티벌’ 음악감독, 광고 센터 뮤직 페스티벌 총감독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위너뮤직 코리아와 첫 앨범 ‘마이 리틀 레이디’를 발매한 뒤 ‘첼리스트 김규식과 배우 김세아의 테고음악’, 2집 ‘라틴&탱고’ 등을 냈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프랑크의 ‘첼로 소나타 A장조’,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중 ‘나이트클럽’을 편곡한 작품으로 연주한다. 이날 무대에서는 아르투르 발삼 듀오 컴퍼티션 1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현영경이 협연한다.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의 02-515-5123.

광주 공연에 대한 김규식의 기대감을

정율성 음악축제 정체성·발전방안 모색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정율성 축제의 정체성과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광주시 주최, 광주문화재단 주관으로 28일 오후 3시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열리는 ‘정율성 심포지엄’은 정율성음악축제의 발전을 모색하고 성과와 반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전남대 음악학과 정현수 교수를 좌장으로 ‘음악축제 정체성과 확장 가능성, 그리고 전망’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광주와 통영의 대표 음악가이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공동점을 지닌 정율성(1914년생)과 윤이상(1917년생)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영진 뮤직리뷰 편

집위원이자 음악평론가가 ‘음악축제로서 정율성음악축제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김선철 광주대 음악학부 교수, 김희정 아시아문화원 콘텐츠사업본부장, 성용원 상명대 음악학부 외래교수, 이종도 통영국제음악재단 윤이상기념관 팀장이 토론으로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은 이경본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이 ‘망명 음악가로서 윤이상’ 발제를, 최애경 충남대 예술문화연구소 연구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마지막 세션은 윤신하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연구소 방문연구원이 ‘아시아의 ‘내부’와 ‘외부’: 정율성과 윤이상의 이주음악’ 발제를, 이미경 전남대 음악교육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문의 062-670-7469.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제PEN광주문학상 김영관·이보영 선정

올해의 작품상 이겨울 시인

올해 국제PEN광주문학상 수상자로 김영관(수필·희곡), 이보영(시조) 씨가 선정됐다. 또한 올해의 작품상은 이겨울 시인의 ‘바람에 눈을 뵈 구름’이 수상작에 선정됐다.

국제PEN클럽 광주시위원회(회장 박신영)는 최근 문학상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대 영문과 명예교수이자 셰익스피어 회원인 김영관 작가는 올해 출간한 수필집 ‘가을 벤치에서 (한림)’로 수상자로 결정됐으며 시조시계 신인상과 전남문학상, 무등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이보영 시인은 ‘나직한 목소리 (고요아침)’로 영광을 안았다.

‘바람에 눈을 뵈 구름’으로 작품상을 수상한 이겨울 시인은 “올해의 작품상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숙제를 받은 기분”이라며 “어쩔지 못한 작품을 선정해준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30일 광주예총 아시아 창작스튜디오 방울소리 공연장에서 열리며 ‘국제펜광주 16호 출판기념회’와 ‘국제펜광주 사무실 개소식’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문의 010-4941-905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악교육교원연수’ 참가자 다음달 3~7일 접수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은 다음달 3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2019 동계 국악교육교원직무연수’ 참가자를 신청 받는다.

2019년 1월7~11일 진도군 남도국악원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는 전국 유치원

·초교 교원대상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음악교과서를 바탕으로 전래동요와 민요, 장구반주법, 강강술래 등 실습 위주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남도국악원 홈페이지(jindo.gugak.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1-540-4038. /백희준 기자 bhj@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짚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미노산,
완벽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